



66

출퇴근 전후로

남는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문화 활동도 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이지요.

99

디지털 문맹, 이제는 안녕!

가원시니어도서관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문화 활동 외에도 키오스크 사용법 등 디지털 문해 교육도 하고 있다. 이른바 ‘해피테이블’로 불리는 디지털 기기로 각종 자료를 검색하고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한편, 도서관에 설치된 교육용 키오스크를 활용해 식음료 주문이나 무인 민원 발급, 열차 예매, ATM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화노인종합복지관에서 파견 나온 6명의 시니어가 오전과 오후반으로 활동하며 가원시니어도서관을 찾은 어르신들을 돕는다. 과거 기업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장세훈 어르신(일산동, 68세)은 도서관 지원 업무를 하면서 일상의 활력을 얻고 있다고 전한다.

“정년퇴직 후 조금 일하다가 8년을 내리 쉬었습니다. 그러다 올해부터 시니어도서관 지원 업무를 시작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세 번 정해진 시간에 나와 근무하니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도 됩니다.”



건강하고 ✨ 행복한 생활

함께해요!



가원시니어도서관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중양로 1576 8층(대화동)

문의
☎ 031-916-0804

함께 문화 활동하며 활력을 더해요

홀로 긴 시간을 보내며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 시니어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지난 4월에는 나태주 시인의 북 콘서트, 5월에는 생태체험, 6월에는 민화부채 만들기를 진행했다. 그 밖에도 여름 원예·수경 재배, 소고놀이, 표현 활동, 풍경 그리기 대회, 건강 수제청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매월 북 큐레이션 주제를 정하고, 이와 관련한 연계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에는 7월 주제인 ‘일상의 기록, 역사가 되다’에 맞추어 압화 카드 만들기를 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10명의 시니어들은 손수 꽃잎을 붙여 카드를 만든 후,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하는 마음 속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니어들의 건강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통로이자, 커뮤니티 공간인 가원시니어도서관에 더 많은 이의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바란다.